

송 태종대 雍熙北伐에 관한 연구

朴 志 焄*

1. 머 리 말
2. 송 건국 초기의 송요 형세
3. 태종대 옹희북벌 이전의 戰役
4. 옹희북벌
5. 옹희북벌에 대한 평가
6. 옹희북벌 이후의 송요관계
7. 맺 음 말

1. 머 리 말

중국 역사상 10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초까지는 송과 요의 대치시기였다. 이 150여 년 동안 송요는 두 개의 강대한 정권으로 서로 대결하였는데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평화를 이루어 하나의 과란만장한 역사극을 연출하였다. 송요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상호

전쟁 단계(960-1004년)로써 북송은 요와 연운(燕雲)지구의 귀속권을 두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루었다. 쌍방의 승부가 교차되다가 전력이 점점 평형 상태가 되어 대치국면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는 평화적 대치단계(1004-1120년)이다. 평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국 통치자는 모두 노력하였고, 그 기간 동안 몇 차례 분규가 있었지만 모두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끝으로 송이 금과 연맹하여 요를 공격하는 단계(1120-1125년)로써 연운지구를 수복하기 위해 북송은 금과 연합, 요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지만 결국 금과 교전하게 된다.

요의 측면에서 볼 때 요 왕조의 외교정책은 기민하고 다변적이었다. 요 왕조의 강적은 북송 왕조였으며 따라서 외교정책의 중점은 북송과의 관계에 있었다. 주변 기타 제국과의 관계는 북송과의 관계를 보면서 정해졌다. 서하와는 때로 연합하여 송을 누르고 때로는 피차에 충돌하기도 하였다. 고려와는 평화적인 교류를 하였고 때로는 은위(恩威)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목적은 고려와 북송의 연합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입국 초기에는 요 태조, 요 태종 등 몇몇 황제가 대외확장 정책을 취하여 영토를 계속 확장하였다. 요 태종 때에는 연운16주를 병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황하의 남안(南岸)까지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몇 황제는 전 중국을 통일시키고자 했다. 성종 이후에 이르면 북송과 20여 년의 전쟁을 거쳐 대일통(大一統)의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북송과 '전연맹약'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비록 주변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지만 기본상으로는 100여 년의 우호적이고 평등한 외교정책을 실시하였다.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는 기존 전통시대 한족(漢族) 왕조를 중국 역사의 중심으로 보던 것과는 자못 다른 시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민족단결의 발전은 수당의 제2차 大整合을 거쳐서 송요하금원 시기에 제2차 大衝突시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즉 각 민족 정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민족 내의 충돌이라고 단정하는 연구시각을 보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여준다. 송이 건국되기 이전 五代十國은 소수민족 정권과 한족 정권 사이에 충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오대의 후당, 후진, 후한은 서돌궐 沙陀족이 건립한 것이다. 십국 또한 토번, 南詔, 靺鞨 등과 대항하였다. 북송은 또한 거란족의 요와 당항족의 서하와 鼎立하였다. 남송은 먼저 여진족의 금국과 남북대치 상황이었고, 후에 몽고족의 원조는 바로 원에게 멸망되었다. 이러한 대항 가운데 전쟁은 민족 상호이동과 충돌의 주선율이었다.¹⁾

또 하나의 시각은 북송과 요의 관계를 중국 민족 관계사상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했다.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격렬한 전쟁과 충돌이 있었지만 평화적인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여 민족 융합의 행보를 더욱 빠르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 민족융합의 궤적을 탐구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민족단결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大西北을 더욱 잘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²⁾고 하여 최근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에 부합하려고 하는 뚜렷한 의도가 개재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연맹약의 정립 이전에는 송은 後晋 이래 요에게 할양했던 연운16주를 수복하기 위해서 요와 장기적인 정벌전쟁을 그치지 않았다. 특히 송 태종의 통치시기에 일찍이 太平興國4년(979)과 雍熙3년(986) 두 차례 대규모 북방정벌을 통하여 연운지구 수복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송의 패배로 끝났다. 이는 태종 및 송 정권의 실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高粱河 전투와 옹희북벌의 실패는 송조 역사상에서 주의할 만한 전환점이 되었다. 송대는 ‘積貧積弱’하였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고량하 전투의 패배에서 시작하여 옹희북벌의 실패 후에 형성되었고 거기에다 진중의 大中祥符 연간에 더욱 심해져 인종 대에 이르면 적빈적약의 상황이 이미 누적되어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

1) 徐杰舜, 『宋遼夏金民族互動過程述論』(『貴州民族研究』, 2005年 第3期), p. 168.

2) 彭鳳萍, 『北宋與遼朝的關係』(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1).

따라서 옹희북벌은 송요관계사상 중대한 사건이다. 북벌한 후에 송요는 장기적으로 대치하였다. 특히 옹희북벌에서 歧溝關의 전투 또한 전쟁사상 중요한 전역이다. 본고에서는 옹희북벌을 전후한 송요의 관계와 북벌의 원인과 결과, 전쟁의 성격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또한 거란족, 한족 모두 중국 민족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옹희북벌은 비정의적인 전쟁이며, 중원왕조 중심설, 즉 대한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논점들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³⁾ 최근 송요관계나 송요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연구성과에서는 각종 역사공정과 민족공정을 반영한 새로운 논점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2. 송 건국 초기의 송요 형세

북송 건립과 그 후 중원의 통일은 송과 요를 대치 국면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이후 抗遼, 御遼는 송조의 중요한 대외적인 國策이 되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송요관계는 서서히 변화가 생겼는데 요에 대한 굴욕과 두려움은 시종 송대인이 벗어나기 어려운 주요한 심리상태였고 아울러 송조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운16주는 오늘날 하북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송 초 송요관계 가운데 중요한 문제이다. 명칭 이래로 학자들은 송 초에 송요 양국이 모두 서로 併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즉 요는 연운을 검거하면서 남하하여 송을 멸망시키려고 한 반면 송은 여러 차례 연운을 북벌하여 통일 대업을 완성하고 漢唐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송 초에 송요는 서로 나누어 가지고 스스로 지키려는 책략을

3) 顧全芳, 『評北宋雍熙北伐』(『中州學刊』1984年 2期), pp. 112-115.

가지고 상대방을 병탄하려는 의도는 모두 없었다고 본다. 송 초의 세 군주는 연운을 수복하려는 雄志는 없었고, 단지 요는 적극적인 防守였고 송은 소극적인 自守라는 차이가 있었다. 태조는 연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정권 안정이 더 급하였고, 요와 대항하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연운 회복의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았다.⁴⁾

즉 초기에 北邊을 중시하고 西鄙를 경시하여 960년 북송건립 후에 송 태조 趙匡胤은 천하를 통일하는 전략 방침을 제정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는 '先易後難', '先南後北'의 정책으로 표현되었다. 우선 거란 요조를 강적으로 보아 통일전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방의 강한 요에 대하여 잠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때 요조는 내부문제가 복잡하여 역시 송과 교류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송 태조 시기에 북부 변경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송 태조는 시종 연운지역을 수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일찍이 여러 차례 "변경지역에 巡幸하고 친히 士卒을 위무하였다"⁵⁾는 등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송 태조 시기의 '先南後北' 정책에 대하여 학술계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입장을 보면, 첫째 여러 대신들의 인식과 의견에 기초하여 송 태조는 '先南後北'의 통일 방침을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地運南趨'가 고려된 것이다. '地運南趨'는 '경제중심의 南移'와 같은 맥락이고 이는 객관적인 역사 사실과도 부합된다. 송 태조와 북송의 北征의 문제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先南後北'은 中唐 이후 경제중심의 남이라는 객관적인 추세와 부합되고 중국 역사상 '地運變遷'의 大原에 순응하는 기본 사고는 정확한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의 저명한 역사가 范文瀾, 陶懋炳 등은 모두 '先南後北'의 북은 북한과 幽雲십육주를 일컫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지만 연운을 수복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4) 孫建民, 『燕雲十六州與宋初宋遼的軍事策略』(『河北學刊』, 1989年 4期), pp. 90-91.

5) 『全宋文』 권6, 『幸邊陲詔』(巴蜀書社, 1988), p. 148.

세 번째로 연운16주에 대해 보면 한편으로 이는 중원의 故土였고 고토를 수복한다는 것은 정의성과 진정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거란의 실제 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명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연운16주는 일찍이 後晉 때 거란에게 할양한 것이고 후한과 후주 두 왕조를 거치면서 북송에 이르러 민족 간의 역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연운문제의 해결은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었다.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도전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모험적인 것이다. 하지만 명분은 있다. 평화적으로 고토를 '贖回'한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송 태조는 현실을 파악하고 득실에 따라 무력으로 회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히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와는 다른 시각도 있다. 즉 송 초 先南後北 통일 방침 토론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시각으로써, 첫째, 後周 王朴이 말한 '先易後難'의 '易'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약한 상대에 대해 쉽게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적 긴 邊境線上에서 용이하게 돌파구를 찾는다는 의미이다. 둘째, 송 초의 군신들은 비록 연운지구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었지만 선남 후북 통일방침 가운데 북은 北漢을 이르는 것일 뿐 연운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송 초에 이르면 연운은 거란에 귀속된 지 20년에 가깝고, 연운을 수복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이미 송과 요 사이의 邊防 문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에 논의되었던 사실 중에 後周 世宗이 기정의 방침을 바꾸어 거란을 남침한 원인과 송 초 경제력이 요국보다 못하였다는 시각들이 史實과 부합하지 않는다.

남송 초 이래로 수백 년 동안 역대의 학자들은 송 초 군신이 제정한 선남후북 통일책략에 대해 평가가 다르고 논쟁이 분분하였는데 대체로 두 가지 대립된 의견이 있었다. 그 하나는 선남후북 정책은 실책이며 그것은 주

6) 王育濟, 『宋初“先南後北”統一策略的再探討』(『東岳論叢』, 1996年 第1期), pp. 82-89.

세종의 선남후북 책략을 변화시킨 것으로 송 초에 연운지구를 수복하는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 다른 의견은 선남후북 정책이 당시 송과 거란의 종합적인 국력 강약의 객관적인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1980년대 이전에 비교적 유행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후자의 관점이 송사 연구자들에게 많이 채택되었다. 과거의 연구로 말하자면 상당히 큰 진전과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별히 몇 가지 기본 재료는 아직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시각을 제출하고 있다.⁷⁾ 이를 좀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先易後難에 관련된 문제이다. 논자는 송 초 군신이 선남후북을 채택한 이유는 북방의 요, 북한이 북송에 비해 강대하여 공격하여 취하기에 어렵고 남방의 여러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승리할 만했기 때문에 선이 후난은 선남후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또한 이는 직접적으로 주 세종 시기 王朴의 '平邊策'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료를 자세히 보면 이는 先易後難의 설이 결코 아니다. 둘째, 태조가 연운지구를 통일의 대상으로 삼았는가의 여부 문제이다. 과거에는 "송 초에 연운을 내버려 두고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관점이 있었는데 현재 토론을 거쳐 이미 기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관련 사실을 분석해 볼 때 태조가 비록 幽薊 失地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수복의 계획과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볼 때 송 초에 先南後北의 통일 정책을 취한 것은 송 태조가 군사력 면에서 요가 강하고 송이 약하다는 사실을 바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송은 後周 개혁의 기초 위에서 생산력 발전의 조치를 크게 추진하였고 군사상에서는 대장의 병권을 삭탈하였으며 이어서 남방의 할거세력을 소탕하였고 최후에 南唐을 멸망시키고 강남을 통일하였다. 976년에 북송은

이미 300여만 호였다. 이러한 준비 후에 송 태조는 969, 976년 두 차례 北漢에 진공하여 요송 전쟁의 서막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결과는 두 차례 모두 북송의 패배였다.⁸⁾

3. 태종대 옹희북벌 이전의 戰役

첫째, 태평흥국4년(979) 6월, 송 태종은 북벌을 통해 연운지구에 대한 수복을 기도하였다. 송군은 먼저 易州와 涿州를 가볍게 취한 연후에 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요의 南京(오늘날 北京)을 공격하였다. 요군은 城池를 굳게 지켜서 송군이 오랫동안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7월 초에 耶律沙가 太原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것을 듣고 회군하는 가운데 송군과 高粱河에서 싸워 송군을 크게 패배시켰다.

둘째, 같은 해 9월 遼 景宗이 군대를 이끌고 南伐하고, 또한 善補頡에게 명하여 山西의 군대를 나누어 진격하도록 하였다. 10월, 요군과 송군은 滿城에서 싸웠다. 요의 장군 韓廣嗣中이 거짓으로 항복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패하였다. 11월, 代州, 忻州, 關南 등지에서 요의 진공을 격퇴시켰다.

셋째, 태평흥국5년(遼 乾亨2년, 980) 요가 10만 대군을 파병하여 雁門으로 진공하자 송군 楊業 등이 패하였다. 10월, 요 경종은 군대를 이끌고 南伐하여 耶律休哥 등이 瓦橋關(오늘날 하북성 雄縣)을 포위공격하였다. 11월, 송 태종은 군대를 이끌고 北征하여 易水의 남쪽에 진을 쳤다. 耶律休哥는 정예 기병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전쟁을 감행하여 송군을 대패시켰을 뿐 아니라 莫州까지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길에 가득하게 시체가 즐비하였고, 생포한 장수들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7) 李華瑞, 「關於宋初先南後北統一方針討論中的幾個問題」(『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2卷 第4期, 1997年), pp. 49-55.

8) 閻玉啓, 「遼朝的養馬業和遼宋關係」, 『北京師範大學學報』(1990年 第4期), p. 42.

9) 脫脫 等, 『遼史』, 「耶律休哥傳」, 권83, 열전제3(中華書局本, 1975), p. 1300.

넷째, 태평흥국7년(遼 乾亨4년, 982) 4월, 경종은 3만의 군을 이끌고 남벌하여 송군과 滿城에서 싸웠다. 5월, 또한 군대를 3개로 나누었다. 一路는 高陽關을 공격하였고, 일로는 雁門을, 일로는 府州를 공격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高梁河의 전투로서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북송 건립 19년 후인 979년 송 태종은 끝내 대요전쟁을 일으켜 유명한 高梁河 전투가 폭발되었다. 송 태종은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북벌을 감행하여 일거에 幽州를 수복하려고 기도하였다. 당시 太原의 北漢을 멸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승리했는데도 상을 내리지 않았고, 장수와 병사가 지쳐있는 상태였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회군할 것을 상주하였는데 오직 崔翰이 승세를 타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송 태종은 衆意를 따르지 않고 급히 유주성 아래까지 진군하여 유주성을 세 바퀴나 포위하였다. 그는 직접 攻城을 독려했으나 오랫동안 함락시키지 못했다. 성내에서는 단지 수천 명의 요군이 死守하고 있었는데 송의 10여만 대군이 유주성 아래에 운집해 있을 때 요군의 주력 騎兵은 좌우 양익으로 나뉘어 송군을 협공하였고 고량하를 돌파하여 송군을 궤멸시켰다.

송의 사서에는 송군의 궤멸 원인에 대해서

上이 유주성을 열흘이 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자 士卒이 피로해지고 돌아가기도 멀어져 버렸다. 거란이 와서 구할까 두려워하여 드디어 班師를 詔하였다.¹⁰⁾

라고 하였고, 『요사』에서는

秋7月 癸未에 송병과 고량하에서 전투하였는데 耶律休哥, 耶律斜軫 등이

10)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권20, 태평흥국4년 7월 갑신, p. 457(上海師範學院古籍整理研究室·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室(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5) [이하 『장편』으로 약칭].

공격하여 크게 그들을 패배시켰다. 宋主는 겨우 몸을 免하였다. 涿州에 이르러 몰래 驢車를 타고 피해 달아났다.¹¹⁾

이렇게 『요사』에는 요의 승리가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송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실패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고량하 전투에서 송의 패배는 원인이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賞罰이 밝지 않고, 병사가 피로하며 수송에도 곤란을 받았고 고립된 군사가 깊이 들어간 것 등등이다. 하지만 천백여 년 동안 史家들의 衆論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군의 기십만 대군이 대부분 步兵이었고, 騎兵은 비교적 적었는데 보병으로서 기병을 상대하는데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북송의 십여만 대군은 사면에서 幽州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였으나 요군은 천리 밖에서부터 정예 기병을 증원하여 최후의 일거에 송군을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분명히 요 기병은 거대한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주의할 만한 점은 쌍방의 병력을 대비해 보았을 때 송군은 최소한 10만 이상이었으나, 요군은 오히려 3만의 정예기병이었다. 고량하의 패배에서 송군 10여만 명이 궤멸되었고, 20년 동안 축적된 정예부대의 사기도 크게 손상되었으며 태종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 威信이 크게 추락되었다.

4. 옹희북벌

(1) 옹희북벌의 원인

開寶9년(976) 10월 송 태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는 50세였다. 태조의 皇弟 趙匡義(당시 晉王 겸 開封尹)가 황위를 계승하였는데 그가

11) 『요사』, 『景宗紀』 권9, 본기제9, p. 102.

곧 태종이다. 태조의 죽음과 태종의 계승은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 사실과 진상은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태조의 죽음과 태종의 계위는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태종의 통치 지위는 계속 위기의 연속이었다. 『續資治通鑑長編』 권38에는 至道원년(995) 12월 태종은 '革故鼎新'의 의지를 표명하고 조정의 법도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는 스스로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태종 시기는 대체로 태조 때 새로 만든 법도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나고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조가 이루지 못했던 통일 사업을 완성함으로써 위엄을 높이고 민심을 진무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통치지위를 확립하는 길이었다. 대외전쟁과 내부의 정치적 입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태종은 내부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군비확충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면서도 정치적 입지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대요전쟁을 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송 태조 조광윤은 후주를 이어 송을 건국한 후 큰 뜻을 가지고 先南後北의 전략 방침을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송 태종은 즉위 후에 형의 유업을 계승하여 이루려는 뜻을 급하게 시행하였다. 송 태조는 비교적 냉정하게 요국의 강대함을 인정하고 미리 재정을 준비한 후에 군대를 일으키자고 했지만 송 태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일찍이 그는 무력으로 요국을 정벌하려는 방침을 정하였다. 태평흥국4년(979) 太原을 親征한 후 곧바로 요의 南京까지 친정하였지만 결국 요에게 대패를 당하여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이러한 북벌의 패배에 송 태종은 요를 패배시키려면 결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하여 내린 「保疆詔」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즉 “거란 一邦은 평소에

원한이 없고 서로 使命이 자못 많이 통하고 있으니 封疆을 지키고 적당히 하여 근심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고 邊民에게 “邊關을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¹²⁾

그러나 사실상 송 태종은 여전히 요를 공격하여 연운지역을 다시 찾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태평흥국5년(980) 말, 요는 지난해에 송 태종이 남경을 공격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송의 국경에 진군하여 송의 守將들을 각 路에서 격퇴시켰다. 그러자 송 태종은 화가 나서 요를 공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幽州까지 공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李昉 등이 극력 만류하였고, 전쟁이 빈번하면 군민이 피폐해진다는 등 불리한 조건을 설명하여 송 태종도 겨우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송의 수도인 개봉에 들어온 후 신료들은 송 태종에게 영합하여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신속하게 幽薊를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張齊賢 등은 河東, 新平 등 군민들이 전쟁에 염증을 낸다는 것을 알아서 경거망동을 반대하였다. 송 태종 역시 대체적으로 이 점에 유의하여 잠시 요를 공격하려는 마음을 접어두었다.

6년의 시간이 흐르자 역사적인 교훈도 점점 희미해져서 송 태종은 인력, 물력, 재력 등을 준비하여 끝내 또 한 차례 대거 북벌을 준비하였으나 또 한 차례의 패배를 맛보았다. 이것은 오히려 북벌이 송 태종이 일심으로 요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필연적인 행동이었으며 어떠한 우연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淳化4년(993) 11월에 송 태종은 자신의 요 정벌의 궤적을 회상하면서 侍臣에게 이르기를,

짐이 즉위 이래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한 것은 대개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려는 것이었다. … 짐이 군대를 일으킬 것을 논의하는 것은 모두 ‘不得已’ 해서였다. 예로부터 이르기를 王師는 時雨와 같아서 대개 의로운 것이다. 오늘날 변방이 무사하니 단지 항상 修德하여 懷遠하는 것이 청정하게 다스

12) 『宋大詔令集』 권214, 태평흥국7년 10월 계유(冊文書局本, 1962), p. 814.

림에 이르는 길이다.¹³⁾

라고 하였지만 이 말과 요의 역사 사실을 비추어 볼 때 '救民'과 '不得已'라는 것은 오히려 거짓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국내정황으로 볼 때도 송 태종은 군정의 대권이 한몸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권이 방해를 받거나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 대요전쟁을 일으킬 때도 송 태종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모두 그의 결정에 따랐는데 근본적으로 '부득이'했던 일은 없었다. 송요 양측의 관계에서 볼 때 송이 건국하고 송 태종이 즉위한 후까지 양국은 기본상으로 평화적인 공존상태였고, 또한 和約도 정립된 상태였다. 송 태조와 태종은 3차에 걸쳐 太原을 공격하였고, 요는 北漢을 돕기 위해 출병하여 송군과 전쟁하였지만 그 후에는 겨우 크지 않은 규모로 두 차례 송을 침범했을 뿐이다. 옹희북벌 이전 4년 동안 요가 남하한 적이 없었고 근본적으로 요를 정벌하기 않으면 안 될 형세가 아니었다. 이와는 반대로 송 태종은 오히려 일찍이 대거 북진하였다. 옹희북벌을 포함하여 모두 요군이 변경을 압박하거나 송에 침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북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옹희북벌은 사실상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북정이 '救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송 태종의 본의가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백성을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쟁의 잔인함과 해로움을 송 태종은 잘 알지 못 했던 것 같다. 한편 연운16주의 백성들이 송조의 통치를 진정으로 바랐는지 알 수 없고, '塗炭'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송 태종이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보다 군이 요 통치하의 백성을 구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송 태종은 두 차례의 대규모 요 정벌에서 그의 '天威'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즉 자신의 위의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 백성을 괴롭힌 것이다.

13) 『장편』 권34, 태종 순화4년 11월 갑인, pp. 758-759.

14) 顧全芳, 『評北宋雍熙北伐』(『中州學刊』, 1984年 2期), pp. 113-114.

『續資治通鑑長編』에 따르면 옹희북벌은,

契丹主가 어리고 국사가 그 어머니에게서 결정되고, 그 대장 韓德讓이 총애를 받아 국사를 마음대로 하여 國人들이 싫어한다니 그들의 틈을 타서 幽薊를 취하기를 청합니다.¹⁵⁾

라고 賀令圖 등이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송 태종이 새로이 북벌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보기 어렵다. 송 태종은 일심으로 북벌을 하려고 일찍이 "뜻을 두고" 있었으므로 하령도의 말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벌의 시기에 여러 대신들은 반대를 표시하여 송 태종이 단지 하령도의 말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적으로 982년 요 성종이 12세로 즉위하였을 때는 요국의 국세가 크게 혼란스럽지 않았고, 옹희북벌을 감행한 지 4년 후에도 역시 큰 혼란은 없었다.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안정된 시기였다. 송 태종이 이 시기에 북벌을 선택한 것도 그의 실책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옹희북벌을 일으킨 원인은 첫째, 하령도 등이 일찍이 북벌을 건의했기 때문이 아니고, 둘째, 요국이 혼란하고 국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보다는 송 태종이 일찍이 북벌을 준비하였는데도 하령도 등이 북벌실패의 속죄양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옹희북벌의 경과

고량하의 전투에서 북송의 실패 이후 송 태종은 몇 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요를 정벌할 시기를 기다렸다. 요 景宗의 喪을 당하여 겨우 12세인 요 聖宗이 즉위했고 그 모후인 承天后가 조정을 장악하여 대권을 잡았다. 이렇게 國主가 어리고 국가가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북송이 요를 정벌할 기회라고 보았다. 또한 역사상 이러한 국면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으로 극적인

15) 『장편』 권27, 옹희3년 정월 무인, p. 602.

변화가 발생하곤 하였다. 공식적으로 송 태종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대신들은 이것이 요를 멸망시킬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옹희3년(986)에 요송 사이에 다시 大戰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북송에서 이른바 '옹희북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송 태종은 친히 지휘하였다.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였던 대규모 군사행동이었다. 출동된 병력은 3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송 초 20여 년 동안 모집하고 훈련한 정예부대였다. 고량하와 막주의 두 전투에서 섬멸당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두 이 북벌에 투입된 것이다. 송군은 군대를 三路로 나누어 東路는 曹彬, 米信, 崔彥이 나아가 송군의 주력을 이끌었는데 주로 幽州를 공격하였고, 中路는 田重이 이끌고 飛狐에서 출발하였으며, 西路는 潘美, 楊業이 인솔하여 雁門에서 진격하였다.

이렇게 거병 처음에는 송군은 삼로에 모두 捷報가 있어서 순조롭게 진군하였고 요군의 주력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요는 송의 전면 진공에 대하여 각개격파술을 채택하였다. 耶律休哥가 조빈을 막고, 耶律斜軫이 반미를 막고 승천후와 성종이 유주에 진을 치고 있어서 증원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때 송군의 주력은 동로 조빈으로 10만 대군이 涿州에서 10일을 숙영하였는데 군량이 떨어졌다. 바로 군대를 돌려 군량을 기다리다가 요 승천후의 원군과 야율휴가의 대군이 협공하여 탁주의 서남쪽 岐溝關에서 큰 전투를 벌였으나 송군이 대패하였다. 송군은 “溺死者를 셀 수 없을 정도”였고, “沙河가 그들 때문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주력이 궤멸되었다. 다른 양로의 군대도 모두 패하여 양업은 포로가 되어 단식하다가 죽었다. 송조의 옹희북벌은 또 다시 실패를 고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송군은 자못 순리에 따라서 전진을 개시하였다. 岐溝, 涿州, 固關, 新城 등지를 연이어 함락시켰고 요측의 변경을 지키는 장수들 가운데 투항하는 자들도 많았다. 더욱이 그 中路의 田重進과 西路의 潘美 군대는 더욱 순조롭게 連戰하여 승리를 거두고 요군을 거둬 패배시키면서 많은 지역을 점령하였다. 耶律休哥는 송군을 맞아 잠시 출전하지 않고 성

이 높고 해자가 깊은 幽州를 굳게 지키면서 동시에 輕騎兵을 東路의 曹彬, 米信의 두 군대 후방으로 보내어 糧道를 끊는 작전을 취하였다. 그 이외에 使者를 요 조정에 급히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承天后와 요 성종은 보고를 받고 “使者를 나누어 파견하여 여러 部兵을 동원하여 야율휴가를 지원하여 싸우도록 하였고 다시 동경 留守 耶律末只를 보내 대군으로 계속 진격하도록 하고 전적으로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승천후와 요 성종은 이어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였고 아울러 동쪽의 여진의 병마를 징발하여 지원하도록 재촉하는 등 송군과 죽음을 건 결전의 의지를 보였다.

같은 해 옹희3년(986) 5월, 승천후와 요 성종은 戰線에 도착하여 전쟁을 독려하였고 야율휴가는 각로의 대군을 지휘하였다. 그리하여 송의 동로 조빈, 미신 수양군과 기구관에서 격전을 벌여 송군이 대패하여 拒馬河까지 도망하자 요군은 추격하였다. “익사자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고”, “죽은 자가 수만, 버린 무기와 갑옷 등이 丘陵과 같았다”고 전한다.

6월, 耶律斜軫이 군사 10만여 명을 이끌고 송조의 西路 반미군을 맞아 싸웠는데 朔州의 일전에서 송의 勇將 楊業이 잡히고 서로군은 궤멸되었다. 송군은 수만 명이 섬멸당했다. 송 조정에서는 강공에 함락당한지 얼마 되지 않은 雲, 應 등 州의 군을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되돌아왔다. 요군은 승기를 타고 실지를 모두 회복하였다. 中路의 전 중진 군도 형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황급히 퇴군하여 定州의 주둔지까지 회군하였다. 이는 겨우 하나의 살아있는 역량을 보존한 셈이었다. 이에 이르러 옹희북벌은 전면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11월, 요군은 다시 승기를 잡고 남하하여 河朔지방이 진동하게 되었다. 태종은 宿將을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左衛 上將軍 張永德을 知滄州로 명하고, 左衛 上將軍 宋握을 知霸州로 명하였으며 右驍衛 上將軍 劉廷讓을 知雄州로 삼아서 북부의 邊防을 지키고 요군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12월, 요 성종의 지휘하에 야율휴가는 수만의 기병으로써 君子館에서 송 장군 유정양과 전투를 하였다. 송군은 또 대패하여 전군의 수만 명이 섬멸

당하였고 유정양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요군은 승리를 타서 邢州, 深州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병사를 쫓아서 대량으로 약탈하였다.”¹⁶⁾ 이때 야율 휴가는 “송의 약세를 타서 대략 영토를 황하에 이르러 경계로 삼을 수 있다.”¹⁷⁾라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승천후와 요 성종은 요 태종 덕광이 후진을 멸망시켰던 때를 거울삼아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동의하지 않고 회군을 명하였다.

기구관, 삭주, 군자관 등 세 전투에서의 실패는 송군으로서는 개국 이래 선발하여 훈련한 20만 명이 넘는 정예부대를 여기에 이르러 거의 손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북부의 邊防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후에 요군은 부단히 남하하였다. 端拱원년(988) 겨울에도 요군은 滿城, 祁州, 新樂 등지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다음 해 정월에도 또한 易州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郡邑을 지나는 곳마다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는 곳이 없었고 거기에서 촌락의 자녀를 포로로 데려갔으며 방화하고 대거 약탈하여 金帛을 탈취하여 갔다. 魏, 博의 북부는 모두 그 화를 당하였다.¹⁸⁾

이로부터 송요의 세력균형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요는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3) 옹희북벌의 결과

북송의 기구관 실패는 요송 관계상 단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북송이 20여 년을 지내는 동안 燕雲지역을 수복하려는 전쟁이 철저히

16) 『요사』, 「성종」 2, 권11, 본기제11, p. 126; 『續資治通鑑長編』 권27, 옹희3년, pp. 603-625.

17) 『요사』, 「야율휴가전」 권83, 열전제13, p. 1301.

18) 『장편』 권28, 옹희4년 정월, p. 631; 권30, 端拱2년 정월 기사, p. 667.

실패하였음을 알려준다. 연운을 수복하려는 송 태종의 웅대한 뜻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전략상 진공에서 防守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북송은 다시는 초기와 같은 군사적인 진공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였다. ‘守內虛外’ 정책이 나오게 되어 戶部郎中 張洎는 禦戎 三策을 상소하였고 북송 邊臣 何承矩의 창도하에 서쪽 保州에서 동으로 泥沽海口에 이르는 800리의 방어선을 수축하여 요조의 기병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미 요조의 鐵騎는 일찍이 장성의 겹겹의 관문과 첩첩 산맥을 돌파하였고 요조는 연운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 그런데 하북 평원의 墻灤과 水泊으로 조성된 방어선은 요의 輕騎가 남하하여 중원을 침략하는 데 저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요송 관계사 중에서 요는 말로써 입국하여 군사상 요가 강하고 송이 약하게 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다.

송 태종은 연운을 수복하기 위한 두 차례 전쟁에서 실패하고 북벌하여 故土를 수복하려는 의지를 상실하였다. 단지 ‘祖宗成法’에 따라서 요조를 향해 絹帛을 보내주어 평화를 구하고 국경을 보존하였다. 이때에 요의 성종과 승태후 모자는 개혁을 실시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漢族 관리를 중용하여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옹희북벌은 송요 쌍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규모로 말하자면 이는 송요전쟁사상 처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다. 송조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 역시 극히 참혹하였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송조의 “土卒이 전후하여 沿邊에 전사하였고 부상병들도 셀 수 없을 정도였으며 모두 투지가 없었고, 河朔이 놀라 동요하여 鄉民으로써 군대를 삼아 城을 지켰다.”¹⁹⁾ 또한 여러 대신들이 지적인 것처럼 사회적 생산과 질서가 와해되었고 사졸이 부족하여 백성을 위협하여 병사로 삼았으며 장정을 징집해 가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인정이 동요하여 도적의 무리가 되었다. 전쟁 때문에 산서, 하북 등 지역의 생산력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의 생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요군이 지나간

19) 『元豐類稿』 권49.

도읍은 공격을 견뎌내지 못했고 촌락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혀갔으며 방화와 약탈을 당하였다.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요국에서 송조의 군민을 대량으로 잡아간 것은 사실이다. 전쟁의 경과에 따라 요측의 파괴 또한 매우 컸다. 송군이 지나간 요의 州軍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 태종이 옹희북벌을 일으켜서 백해만 있을 뿐 하나의 이익도 없었다.²⁰⁾

(4) 옹희북벌의 패배원인

옹희3년(986) 봄, 송 태조는 여러 해 동안 준비하여 전국적인 역량을 모아 대규모로 요를 북벌하기로 결정하였다. 북벌하기 전 “처음에 출병을 의논하였을 때 樞密院에서 계획하였고 中書는 관여하지 않았다.”²¹⁾ 이렇게 軍國의 大事를 국가 행정을 관장하는 중서성과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쟁 후에 田錫이 상주하면서 송 태종에게 비판하기를 “어떻게 변경의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군대를 출동하는 데 재상들이 논의에 참가할 수 없단 말입니까!”²²⁾라고 하였고, “재상들은 모르고 추밀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북벌 전에 이미 패배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송 태종은 또한 독단적으로 군대를 三路로 나누기로 결정하였다.

출병 전에 태종은 조빈에게 말하기를 “짐은 반미가 안문에서 나가 먼저 靈, 應을 취하고 卿은 대군으로써 幽州를 취하면서 천천히 행군하면 虜가 듣고 반드시 거기에 강한 군대를 모으고 다시는 山後로 나와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군사상 작전방침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착오를 범한 것이다.²³⁾ 하나는 병력을 분산했다는 점이다. 역사에

는 당시 송 군대는 겨우 20여 만이었다.²⁴⁾ 三路로 군사를 나누고 戰線이 천리에 걸쳐있다는 것은 요군에게 손을 묶고 각개격파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쟁의 진격로에서도 요군은 병력을 집중하여 먼저 조빈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서쪽으로 지원하여 전중진과 반미를 패퇴시켰다. 다음은 이러한 천리에 걸친 대요 攻守의 폐단에 대해 전쟁 후에 張洎가 지적한 바이다. 그는 요에 대한 邊防이 항상 패하는 것은

地利를 잃고 병력을 분산하여 … 국가는 항상 一邑의 무리로 戎人 一國의 군대를 상대하니 이미 적고 많은 것이 차이가 나서 패망이 계속되는 것은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대체로 分兵의 잘못이다.²⁵⁾

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河北은 대평원으로 거란의 騎兵이 달려 나가 공격하기에 유리하고 기동성이 양호해 진퇴가 신속하였다. 송군은 기병이 적고 보병이 많아서 행군이 어렵고 피동적인 위치에 있어서 기병의 습격을 감당하기에 어려웠다. 실전하면서 전중진, 반미의 二路는 송군의 진군이 빨랐고 승전도 많았으며 퇴각할 때에도 참패는 하지 않았던 원인은 바로 山西의 太行山 일대에 산지가 많아서 거란의 기병이 우세를 발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빈의 군대는 응주와 탁주의 사이에 있어서 “군대가 많이 모일 수가 없었고”, “화살과 돌이 나가기도 전에 기이하게도 먼저 어지러워졌다.”²⁶⁾ 따라서 요의 기병은 소수로서 많은 승리를 얻었고 종횡으로 도살하여 결국 송의 全軍이 패망하여 궤멸되었다.

이외에도 송대인 및 몇몇 학자들은 일찍이 북벌의 패배는 조빈이 송 태

20) 顧全芳, 『評北宋雍熙北伐』(『中州學刊』, 1984年 2期), p. 114.

21) 陳邦瞻, 『宋史紀事本末』, 『契丹議和』 권13(北京: 中華書局本, 1977), p. 87.

22) 『장편』 권30, 단공2년 정월 기사, p. 676.

23) 顧全芳, 『評北宋雍熙北伐』(『中州學刊』, 1984年 2期), pp. 112-115.

24) 『元豐類稿』 권49.

25) 『장편』 권30, 단공2년 정월 기사, pp. 666-667.

26) 『장편』 권30, 단공2년 정월 기사, pp. 666-667.

종의 '緩行'하라는 작전방침을 위배하고 개인적으로 요군에게 함부로 진격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송 태종은 북벌 작전에 대해 자신하고 자부하였다. 그는 작전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몸은 東京(당시 송의 수도 개봉)에 있으면서도 직접 지휘하였다. 조빈은 노련한 老將으로 결코 명령을 어기고 모험하여 한때의 功名을 구할 사람은 아니었다. 조빈의 참패는 무엇보다도 송 태종의 작전결정과 지휘의 실책으로부터 비롯하였다.

조빈이 참패한 후 송 태종은 보통 때와 달리 다른 兩路의 병마를 퇴각하라는 명령을 급히 내렸다. 요군은 이긴 여세를 몰아 반격하였고 송군의 손실이 수만에 달하였다. 명장 楊業은 王侁의 압박을 받아서 陳家谷에서 전투에 패하고 포로가 되자 絶食하여 죽었다. 이에 따라 “거란은 양업을 얻어서 승리하였다.” “수만 기병이 瀛州을 취했다.”²⁷⁾ 송은 全軍이 궤멸되었고, “平州 團練使 賀令圖, 高陽關部署 楊重進 등이 함께 함락되면서 거란의 기세는 더욱 커졌다. 오랫동안 深, 祁州에 깊이 들어오고 易州를 함락시키며 魏, 博의 북쪽이 모두 그 화를 입었다.” 따라서 옹희북벌은 송측의 철저한 패배로 종언을 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옹희북벌의 패배는 송 태종의 정책결정과 지휘의 잘못 외에도 북송의 軍政제도와 매우 큰 관계가 있다. 송조는 건국한 후에 당말 오대 시기의 武人 專權, 藩鎮 割據, 군대를 끼고 자립하는 것 등에 대한 교훈을 거울삼았지만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점점 '重文輕武'로 나아갔다.²⁸⁾ 소위 輕武는 주로 무장 권력을 제한하고 약화시켜서 감시하는 것이었고 군권을 황제 일인에게 집중시키려는 것이었다. 심지어 작전 지휘권도 황제가 장악하였다. 교통, 통신이 아직 낙후되었던 송대에 황제가 대개 수도에서 작전을 하고 명령을 하달하면 使者는 수도와 전선 사이를 왕복해야 했다. 순식간에 많이 바뀌는 전쟁의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겠

는가? 이외에도 무장들은 권력이 없었고 또한 주관적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자주 작전과 사무 처리를 물어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송조의 대외전쟁은 피동적이 되어 실패로 귀결되었다.

송대인 및 후래의 저술과 논문 중에는 옹희북벌 실패의 주요 책임을 조빈, 반미 등 장령의 지휘 실패로 귀결시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조빈, 반미 등을 무능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정세와 송 태종의 제약하에서 어떠한 걸출한 장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재능을 발휘하기는 모두 어렵다. 북송이 대요 및 대서하 전쟁에서 대다수 패배한 것도 원인은 장수의 자질보다도 장수의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데 있다. 송 태종의 옹희북벌의 패배는 분명히 그 자신의 책임이다. 즉 군권이 집중되어 있었고, 장수를 택하는 데서 잘못된 것이다.²⁹⁾

한편 『宋史全文續資治通鑑』 권3, 옹희3년 5월에는 呂中的 견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구관의 패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河東을 평정한 다음 王師를 셋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적과 접전하면서 기다리는 때를 얻지 못한 것이다. 둘째, 그 일은 하령도의 부자에게서 시작되었고, 王顯 등 몇몇 사람의 찬성을 얻었지만 中書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曹彬이 上의 詔를 어긴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시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부 대신의 말만 듣고 믿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소위 조빈이 어명을 어겼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는 태종 자신의 말로 실제상으로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지휘 무능력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옹희북벌의 실패원인은 여중이 지적한 두 가지 외에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³⁰⁾

29) 顧全芳, 「評北宋雍熙北伐」(『中州學刊』, 1984年 2期), pp. 112-113.

30) 張其凡, 「從高梁河之敗到雍熙北伐」(『宋代政治軍事論稿』,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9), pp. 119-120.

27) 『요사』, 『성종본기 2』 권11, 본기제11, pp. 123-124.

28) 『北宋代 重內輕外論』(『梨花史學研究』, 第20·21合輯, 1993), pp. 205-224.

첫째, 민심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 태종이 옹희3년 정월 출병하면서 下詔를 내려 출병의 뜻을 천명하였다. 여기에서는 강토를 보존하고 백성의 기대에 따라 구제하겠다고 하였지만, 이후 단공2년 左拾遺, 直史館 王禹偁의 奏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邊民들은 우매하여 聖意를 알지 못하고 모두 그 토지를 탐하는 것으로 알아 北戎이 南牧하는 데에 이르렀다.” 둘째, 태종이 장수를 견제하는 것이 심하고, 또한 자신만이 높고 잘한다고 믿어서 출정 시에도 작전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장수에게 맡기지 않았다. 셋째, 앞에서 적을 맞는 장수인 조빈, 미신, 전중진, 번미 등이 모두 庸才에 불과하고 장수로서 뛰어난 지략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넷째, 요의 장수들은 용맹하고 지략이 있으며 군신이 일치되어 진을 짜고 내부에서도 일심으로 사기가 고양되어 있었다. 태종은 상대방을 아는 데 어두웠고,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공을 세우기에만 급급하고 이익에 어두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벌을 발동하였으니 그 결과는 당연히 참패일 수밖에 없었다. 군대의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황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다.

이외에도 상대편이었던 요 군대의 군사훈련과 병참 보급제도의 우수성에서 송의 실패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상의 기타 봉건왕조와 마찬가지로 거란족 요 왕조는 건립 후에 역시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군대의 조직은 전쟁의 승리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天時와 地理 등 자연 조건 이외에도 군인의 군사기능을 강화시키는 훈련과 병참보급 업무를 충족시키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요의 군대 특히, 요대 전중기의 거란 鐵騎의 전투능력은 매우 강하여 후진을 멸망시키고 북송을 공격했으며 고려를 정벌하고, 서하를 공격하여 성을 빼앗고 영토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모든 戰果는 그의 특수한 군사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¹⁾

31) 張國慶, 「遼朝軍隊의軍事訓練和後勤制度述論」(『內蒙古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年 第4期), p. 70.

다음으로 요군의 군수물자와 병참에 대해서 보면, 먼저 兵器로 요대 군인이 작전 때 사용한 병기는 주로 弓箭, 長短槍 및 刀, 劍 등으로 모두 군졸이 스스로 준비하였다. 궁전은 사정거리가 길었고, 장창은 상대방을 찌르는 데, 단창과 도검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였다. 요군은 기병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마상 작전의 필요에서 병기는 궁전과 장창, 長柄 등이 주로 쓰였고 그중에서도 궁전이 기병의 주요 무기였다. 또한 요군은 기병 위주로서 전마는 군수물자 중 필수품이었다. 요군이 필요한 말은 대부분 군졸들이 스스로 준비한 私馬였다. 이외에 요 정부에서도 대량의 군마를 사육하였는데 이러한 官馬의 숫자도 매우 많았을 뿐 아니라 거란의 말은 전투에 적합한 良馬가 대부분이었다. 요 군대의 군사훈련과 병참제도는 확실히 중원 한족 정권의 군제와는 다른 민족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요군은 단순한 군사훈련만을 한 것이 아니라 狩獵을 통해서 수획물을 얻었고 군졸의 射殺 기능을 훈련하였고 군대 전체의 전술 수준을 제고하였으니 가히 일거양득이라 할 만하다. 다음으로 거란족은 목축과 어렵 위주의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고 강대하면서도 자못 전투력을 갖춘 군사 무장 역량을 조성하게 되었다. 史實이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거란의 鐵騎는 요 왕조가 城을 공격하거나 적에 대한 방어는 물론 강토를 개척할 때 바로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세 번째로 요대 전중기 군대의 출정은 糧草를 준비하지 않고 현지 약탈을 실행하는 병참제도였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요군이 糧草와 輜重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대의 행군 부담을 줄여주었지만 부대의 기동작전 능력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역시 적군이 승기를 잡아서 요군의 군수를 파괴시키면 상당한 정도와 범위 내에서 요군의 군사행동에 영향을 미쳤다.³²⁾

끝으로 요의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馬政에 따라 양측의 군사력의 우위가 달랐던 것도 송의 북벌 실패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역대 요조의

32) 張國慶, 「遼朝軍隊의軍事訓練和後勤制度述論」(『內蒙古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年 第4期), pp. 72-75.

목축업은 그 사회 경제의 주체였고, 양마업은 요조 목축업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요조의 역대 통치자는 한결같이 馬政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요조 양마업의 발전은 요를 강성하도록 만들고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을 가속시켰으며 한편으로 요조와 북송의 200년에 가까운 和戰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요송 40여 년의 군사전쟁 과정에서 요는 마정을 기초로 하여 송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³³⁾

5. 옹희북벌에 대한 평가

우선 첫 번째로 중국 역사상 민족융합의 시각에서 볼 때 오대십국에서 송요하급까지 364년 동안 오대십국과 요, 그리고 송, 요, 서하의 사이와, 남송과 금의 사이에 충돌이 계속 일어났고 전쟁은 이 시기 민족 상호 이동의 주선율이 되었다.³⁴⁾ 정치상의 분열, 군사상의 충돌과 전쟁이 인적 구성면에서 가져온 결과는 인구의 이동과 민족의 유동이였다. 송요시기에 이르면 통치자가 피정복된 기타의 각 민족 인민을 학살하고 약탈하여 노예로 삼는 기재가 모두 이와 부합한다. 역사상 민족의 동화는 일종의 역사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상호 이동의 중요한 단계를 이루었다. 중국역사상 漢族은 줄곧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중원에 들어와 살았던 소수민족의 통치자들은 한족 인구들 사이에서 통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족의 경제와 문화는 줄곧 선도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원에 들어온 소수민족 통치자들은 한민족의 선진적인 경제와 문화에 흡수당하여 정복 후에 존재한 비교적 높은 ‘經濟情況’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피정복자에게 동화되었다”³⁵⁾라고 하는 시각은 송요

간의 전쟁을 하나의 민족동화의 계기로 평가하는 입장이고,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부응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게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논고에서는 송요전쟁은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까지 중국 북방의 광대한 지구에서 발생했던 일종의 내전이였다고 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주로 전쟁의 폐해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이 비정의적이고 약탈적이며 인민의 생명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쟁이 민족융합에 기여했다는 입장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정권 모두 옳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있다. 그것은 두 봉건정권 사이의 역사상에 남아있던 영토분쟁이 일으킨 전쟁이었고 이것의 특징은 쌍방의 교전 세력이 비슷하여 전쟁이 계속되다가 최후에는 쌍방이 평화협정, 즉 ‘전연맹약’을 체결함으로써 끝났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우선 전쟁은 양측의 인민에게 재난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먼저 송의 요에 대한 침략과 관련된 史書의 기록을 볼 때 모두 송의 遼에 대한 침공이 결코 몇몇 史學家들이 말한 것처럼 正義的 전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결코 요 영역 내의 인민, 주로 한족 인민들의 생활에 좋은 점을 주지 못하였고 強盜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약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가 宋에 대해 침략한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편이 상대방의 영토에 침입하였든 간에 모두 사로잡고 약탈을 진행하였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주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든 간에 상대방의 영역 내에 침입하고 약탈을 진행하였으니 非正義的 전쟁이다. 이에 대해 반격하는 측이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의전쟁이다. 송요 전쟁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매번 전투에서 ‘약탈전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송 쌍방에게 평화는 이익이 되었고 전쟁은 서로에게 상처였다. 전연의 맹약 이후 중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은 요송전쟁이 非正義 戰爭이라는 것을

33) 閻玉啓, 「遼朝的養馬業和遼宋關係」(『北京師範大學學報』, 1990年 第4期), pp. 38-44.

34) 徐杰舜, 「宋遼夏金民族互動過程述論」(『貴州民族研究』, 2005年 第3期), p. 168.

35) 徐杰舜, 「宋遼夏金民族互動過程述論」(『貴州民族研究』, 2005年 第3期), p. 170.

36) 徐紅年, 「論遼宋戰爭的性質」(『北京社會科學』, 1994年 1期), pp. 109-113.

알 수 있게 해준다. 전연의 맹약은 당말오대 이래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중국역사상 드물게 보는 백여 년에 달하는 평화시기를 연출하였다. 평화적 환경 안에서 남북의 경제는 모두 장족의 발전을 했다. 상업왕래, 문화 교류는 쌍방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였고, 또한 민족융합을 촉진하였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송요 간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또 다른 논고에서는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³⁷⁾ 첫째, 이 시기 민족 간의 모순 투쟁은 모두 중화민족의 내부 모순으로, 是非曲直의 구분과 정의와 비정의, 진보와 반동의 구분이 있을 뿐, 침략과 반침략의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쟁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전쟁의 목적으로써 정한다. 모든 토지, 인구, 재물을 약탈하여 민족 압박과 수탈을 행한 것은 비정의 전쟁이고, 모든 민족 압박과 약탈에 반항한 전쟁은 정의전쟁이다. 셋째, 이 시기 빈번한 민족전쟁은 각 민족 인민에게 재난을 주었지만 동시에 각 민족 인민이 더욱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상당할 정도로 민족융합을 촉진하였다고 하여 결국 민족융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역대 많은 한족과 한족이 건립한 중원왕조를 ‘中國’이라고 칭하고 소수민족과 그들이 건립한 국가는 ‘夷虜’, ‘番邦’이라고 무시하였다. 이러한 중원왕조 중심론 혹은 大漢族主義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마땅히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위, 촉, 오의 삼국의 분쟁은 이해하면서 송요의 전쟁은 모두 송조에게만 편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송조는 요국을 北征하는 것이 당연하고 요국의 南征은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요의 남침과 마찬가지로 송조의 북정, 예를 들어 옹희북벌 역시 정의의 전쟁이 아니고 약탈과 파괴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몇몇의 논자들은 대개 옹희북벌 때에 요국의 漢人 守將과 관리가 분분히 송에 항복한 것이 북벌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정의의 행동이라고 예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은 일면적인 것이다. 또한 송에 항복한다

37) 彰興旺, 『遼, 夏, 金の建立與宋遼, 宋夏, 宋金の和戰』(『歷史學習』, 2006-1), p. 9.

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허다한 한족의 문무 신료 역시 일찍이 거란에 귀순하고 항복하였으며 어떤 경우는 이미 요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하였다. 이는 요군의 남하가 한인이 환영하는 정의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해석의 문제이다. 옹희북벌에서 송군이 패배했을 때 요군은 대규모로 반격하여 송의 경내에 깊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격은 적은 것이었다. 요국은 승전을 하고도 송조의 토지를 침범하여 점령하지는 않았다. 또한 매우 빠르게 요의 경내로 물러났다. 이는 요국이 그래도 비교적 이치적이었던 것을 보여준다.³⁸⁾

6. 옹희북벌 이후의 송요관계

옹희3년(986) 5월, 송군이 岐溝關(오늘날 하북 涿縣 서남)에서 요군에게 격퇴를 당한 것은 송의 高梁河 전역 실패 후 또 한 차례 북벌의 결과였고 같은 해 7월 朔州의 전투에서 송군이 다시 참패를 당하면서 송은 요에 대해 부득불 進攻전략에서 방어전략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이 실패한 후 송 태종의 예기가 꺾여서 “이때로부터 감히 북으로 향하지 않았다.”³⁹⁾ 여기에서 하북 중부 서쪽은 順安軍(오늘날 하북 高陽縣 서쪽)으로부터, 동쪽은 泥姑寨 海口(오늘날 天津 塘沽 부근)까지 동서 300리, 남북 570리 지구에서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어 둔전을 만들었다.”⁴⁰⁾ 또한 성채를 설치하고 수비군을 두어 요의 기병이 달려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君子館의 전역에서 송군이 다시 패배하면서 송 사대부의 절대 다수는 연운16주를 수복하는 데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反戰의

38) 顧全芳, 『評北宋雍熙北伐』(『中州學刊』, 1984年 2期), pp. 114-115.

39) 『遼史』, 『耶律休哥傳』 권83, 열전제13, p. 1301.

40) 『송사』, 『何承矩傳』 권273, 열전제32, p. 9328.

주장이 날로 고조되었다. 대신 趙普, 趙元僖, 趙孚, 李昉 등은 분분히 상서를 올렸다. 혹자는 북벌이 착오였다는 것을 비평하였고, 혹자는 전쟁을 그만두고 息民하며 요와 通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이미 “來則禦之, 去則勿逐”의 단순 防禦 관점이 출현하였다. 그런데 요와 ‘結好歡和’의 조건은 雙邊의 무역을 회복하는 것을 제외하면 핵심적인 주장은 “華戎의 강역을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었다.⁴¹⁾

端拱2년(989) 정월, 태종은 “詔文武群臣各陳備邊禦戎地策”을 내렸다. 송 조정은 요에 대한 정책을 두고 한차례의 대토론을 전개하였다. 溫仲舒, 張洎, 王禹偁, 田錫, 寇準, 趙普 등 문신들은 모두 선후하여 상주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논술하였다.⁴²⁾ 논술의 중점은 비록 각각 다른 점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다. 즉 모두 단순방어와 요와 통호해야한다는 관점이었다. 어떤 이는 북벌실패의 교훈을 총결하면서 장수의 눈앞에 사람이 없고 재력이 부족하므로, 긴요한 것은 군정을 정돈하고 내정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⁴³⁾

溫仲舒는 전쟁이 하북지구에 야기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以綏民庶’⁴⁴⁾라고 하였고 王禹偁은 또한 송 태종에게 각성할 것을 제기하면서 “哀痛의 詔”를 내려 변민들을 위무시켜야 하고 하북 변민들이 그가 발동한 대요 전쟁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요병이 공격하여 오면 그 재난은 황제에게도 죄가 된다고 하였다. 즉 소위 “邊民들이 어리석어서 聖意를 모르고, 모두 그 토지에만 탐욕을 부린다면 北戎南牧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⁴⁵⁾ 이리하여 조정 상하에 반전 주화가 여론의 주류가 되었고 민심이 향하는 바가 되었다.⁴⁶⁾

41) 『장편』 권27, 옹희3년, pp. 614-630; 권28, 옹희4년, pp. 631-645.

42) 『장편』 권30, 단공2년 정월 기사.

43) 『장편』 권30, 단공2년 정월 기사, 張洎, 田錫 奏, pp. 666-676.

44) 『송사』, 『溫仲舒傳』 권266, 열전제25, p. 9183.

45) 『장편』 권30, 단공2년 정월 기사, p. 672.

46) 줄고, 『북송대 禦戎論과 華夷論』(『역사문화연구』, 第30號, 2008年), pp. 316-321.

송요 양국의 변경선은 구불구불 일천여 리에 이어져 있어 송군이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요 騎兵의 습격을 막아내고 송 경내에 깊게 침입하는 것을 저지해야 변경지역을 굳게 지킬 수 있었다. 이는 결코 간단하고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를 위해서 송은 이하의 조치로서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첫째, 邊防 주둔군을 대량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주로 河北방면에 배치하였다. 둘째, 人工 防禦 공정을 수축하고 方田, 屯田 등을 만들었다. 셋째, 무역을 회복시켜 평화외교를 진행하였다.

1004년 가을 요 승태후와 성종은 친히 20여 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였다. 송군을 定州, 遂城, 祁州, 洺州 등지에서 패배시키고, 11월에는 澶州에 까지 진군하였다. 북송 조정은 놀라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遷都의 論調가 朝堂에 팽배해졌으나 오직 재상 寇準 등 소수인들이 저항을 힘써 주장하여 송진종은 친히 전쟁을 독려하였다. 겨우 요송 쌍방이 서로 어찌할 수 없는 국면이 출현하여 쌍방은 드디어 ‘澶淵之盟’을 맺었다. 요조는 이번의 송을 공격한 군사행동에서 준비를 충분히 하였고 실력도 훌륭하여 송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요조는 계속 남진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재물을 얻고자 했으므로 변경은 겨우 보전될 수 있었다.

송요 사이에 ‘전연맹약’의 방식으로 양국의 적대적 국면을 종식시킨 것에 대해서 사학계에는 상이한 시각과 쟁론이 계속되어 왔다. 어떤 사람은 ‘전연지맹’의 체결을 북송왕조의 굴욕과 매국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조약의 체결이 상당한 진보적인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송요 사이에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전쟁이 끝내 화의 형식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7. 맺 음 말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開寶9년(976) 10월, 송 태종 趙昀이 즉위한

다음 송 태조의 연운 수복에 대한 遺志를 계승하였다. 차제에 남방 諸國 및 북한을 평정한 후에 북방의 요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자신의 정권유지에 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太平興國4년(979) 6월에 송군은 요를 벌하고 연운지구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결과는 高粱河의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어 戰線이 꺾어졌다. 이후 옹희3년(986)에 다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옹희북벌이다.

옹희북벌을 일으킨 원인을 보면 송 태종의 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나고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종이 취하였던 방법으로 태조가 이루지 못했던 통일 사업을 완성함으로써 위엄을 높이고 인심을 진무시켜 자신의 통치지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 입지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대요전쟁을 벌인 것이다. 또한 송요전쟁의 기본 원인은 모두 상대방을 멸망시키려는 데 있었지만 옹희북벌의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연운16주에 대한 쟁탈에 있었다.

옹희북벌의 과정을 요약해보면 옹희3년(986) 정월, 송 태종은 遼主가 어려서 모후가 專權을 행사하고 있는 기회에 다시 군대를 三路로 나누어 북벌을 실시하였는데 병력은 30만에 달하였다. 옹희3년(986) 처음에 3로로 군대를 나누어 북정하였다. 曹彬, 米信, 崔彥은 응주로 진출하였고, 田重은 飛狐로, 潘美와 楊業은 雁門으로 진군하였다. 5월에 반미는 寘, 朔, 雲, 應州 등을 물리치고, 전중은 飛狐를 함락시키고 靈丘, 蔚州 등 山後의 요지로 나아가 이겼다. 그런데 조빈이 대군 10만여 명을 이끌고 涿州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요의 승천후와 성종의 대군이 뒤따라와 지원하여 송군을 탁주에서 패퇴시켰다. 요군은 岐溝關까지 추격하여 송군을 대패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군은 다시 출격하여 雲, 朔, 寘, 應 4주에서 이겼다. 같은 해 7월 朔州의 전투에서 耶律斜軫에게 송군이 다시 참패를 당하였고, 12월에는 耶律休哥에게 君子館에서 패배하면서 송은 요에 대해 부득불 進攻전략에서 방어전략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옹희북벌의 결과 북송의 기구관 전투에서의 실패는 송요 관계상 단계적

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북송이 20여 년을 지내는 동안 燕雲을 수복하려는 전쟁이 철저히 실패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전략상 진공에서 防守로 전화하게 되었다. 송 사대부의 절대 다수는 연운16주를 수복하는데 대해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反戰의 주장이 날로 고조되었다. 대신들은 분분히 상서를 올렸다. 혹자는 북벌이 착오였다는 것을 비평하였고, 혹자는 전쟁을 그만두고 백성을 쉬게 하고, 요와 평화적으로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옹희북벌은 송요 양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규모로 말하자면 이는 송요전쟁사상 처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다. 송조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 역시 극히 참혹하였다. 실패원인을 보면 명분보다는 송 태종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송 태종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송과 상대방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결여도 문제였고, 전략의 실패,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요의 군대조직과 훈련의 우수성, 기병위주의 군대, 무기와 병참 및 양마업의 발전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의 연구 가운데 주목할 점은 옹희북벌을 비롯한 송요전쟁을 10세기 후반기부터 11세기 초까지 중국 북방의 광대한 지구에서 발생했던 일종의 內戰이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주로 전쟁의 폐해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이 비정적적이고 약탈적이며 인민의 생명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정권 모두 옳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시각들도 많다. 역사상 역대 많은 한족과 한족이 건립한 중원왕조를 '中國'이라고 칭하고 소수민족과 그들이 건립한 국가는 '夷虜', '番邦'이라고 무시하였다. 이러한 중원왕조 중심론 혹은 大漢族主義는 오늘날에 있어서 再考되어야 할 문제이다. 전쟁의 성격면에서 보면 옹희북벌은 바로 송이 요를 범한 非正義 전쟁이었다. 그것은 두 봉건정권 사이의 역사상에 남아있던 영토분쟁이 일으킨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쌍방의 교전 세력이 비슷하여 계속

되다가 최후에는 쌍방이 평화협정, 즉 '전연맹약'을 체결함으로써 끝났다. '전연맹약'은 중국 역사상 100여 년에 달하는 송, 요에 더하여 서하 등 삼국정립과 평화상태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

당말 이래로 중국에는 장기적으로 대분열적인 국면이 출현하였다. 요송 시기에 이르면 중국의 大一統이 다시 새롭게 출현하였고 이는 민심이 향하는 바이자 대세가 흐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식하에서 송요 양국은 각기 나누어 선후하여 중국의 북방과 중원, 남방을 통일하여 각기 절반의 강산을 영유하고 남조와 북국의 대치국면을 형성하였다. 둘을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는 전 중국의 통일이 실현되어야 했기에 요송의 쌍방은 모두 전쟁의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통일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서로의 역량을 비교한 후에 쌍방은 누구도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송요 쌍방은 휴전의 화약을 체결하여 각기 절반의 강산을 지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요송관계는 처음에는 40여 년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나 전연화의 이후에는 평화우호국면으로 전환되어 120여 년에 달하도록 유지되면서 당시 역사 발전의 주류를 이루었다.

본고는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송측의 요에 대한 침공으로 발발한 옹희북벌에 대한 논고이다. 이는 전통시대의 역사관에서 한족왕조인 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옹희북벌 혹은 옹희북정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송요를 남북국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한 용어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11. 25, 심사수정일 : 2010. 1. 17, 게재확정일 : 2010. 2. 9)

주제어 : 宋太宗, 雍熙北伐, 高粱河 전투, 岐溝關 전투, 君子館 전투, 송요관계, 遼聖宗, 承天后, 燕雲十六州, 先南後北

<ABSTRACT>

A Study on the *Yongxi* North Invasion in Emperor *Taizong* Period of the *Song* Dynasty

Park, Jih-hun

In the history of China the relations between the *Song* and *Liao* Dynasty are very important. While pursuing various exchanges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reas, the two nations had pursued almost similar policies to realize the grand national unification of China. In that respect, the *Yongxi* North Invasion(雍熙北伐)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ong* and *Liao* Dynasty. With this battle, the two nations of *Song* and *Liao* started to keep a long period of confrontation. Especially, the Battle of *Qigouguan*(岐溝關) produced many important meanings as a big incident in the history of warfa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Song* and *Liao* in the period of before and after the *Yongxi* North Invasion, centered around their causes to effects, characteristics of the warfare. The invasion was mad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other peoples like *Qidans* or *Hans* as they were all small ethnic groups belonging to the whole China. From this perspective, *Yongxi* North Invasion can hardly be said to be a war of justice.

Emperor *Taizong* of the *Song* Dynasty came to throne in October, 976 A.D. After he became a emperor, he wanted to recover the old lost territories to the north. The emperor wished to establish a bid unified

nation by conquering the northern land occupied by *Liao* Territory, the southern land by Hans and the other disobeying na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hostile policy of *Taizong* was originated from his personal wish to keep his own political power. In June, 979 A.D. the Song army marched into *Liao* in order to conquer the area of *Yanyun*(燕雲). But they were almost completely destroyed at the battle of *Gaolianghe*(高粱河).

In January, 986 A.D., Emperor *Taizong* made the North Invasion into *Liao* with an army of 300,000 soldiers whom he forwarded in three different directions. At that time, as Emperor *Liao Shengzong*(聖宗) was still young, his mother *Chengtienhou*(承天后) presided over all political decision makings. *Taizong* wanted to use this unstable political and military conditions in *Liao*. Unexpectedly, however, *Taizong* big army were utterly defeated by the *Liao* Forces. Though he lost a battle at *Qigouguan*, however, the emperor resumed his attack on *Liao* and he made victories in 4 regions. In July of the same year, in the Song army were defeated again at the battle of *Shouzhou*(朔州) County.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Song was defeated again by *Liao*'s General *Yeluxiuge*(耶律休哥) at *Junziguan*(君子館). With this defeat, Song could not help but change its original attack policy to a defense policy.

The *Yongxi* North Invasion made a great social influence on both *Song* and *Liao* Dynasty. This was the biggest battle between the two nations. With this battle the *Song* Dynasty tragically suffered from a war-failure pains. There are several important reasons for this failure. The battle was started for the maintenance of political power. *Taizong* could not make an objective estimation of the military power of the two countries. He was poor in establishing his military strategies, without consideration of geographical conditions. Meanwhile, the *Liao* Forces were better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raining. They had a well-trained soldiers on horse backs with new weapons and good logistics system.

With the failure at the *Yongxi* North Invasion, the great majority of high

officials in *Song* became more suspicious about the possibility to recover the 16 counties of *Yanyun* to the north. Anti-war opinions became more strengthened. Officials repeatedly submitted their supplications of anti-war. Some criticised that the North Invasion was a mistake from the beginning. And others argued that they should pacify their people, normalizing the relations with *Liao*.

Since the late *Tang* Dynasty, China was separated for a long time. Reaching *Liao-Song* Period, a general consensus for a great reunification of China freshly appeared. This was what people wanted, a majority of opin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two countries of *Song* and *Liao* separately, one after another, unified the regions of in each neighborhood. Finally, the two nations succeeded in occupying about the half of China. It created a long-lasting confrontation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y. In order to unite these two nations, they needed a whole unification of China. The two nations of *Liao* and *Song* tried to realize the unification by the policy of defeating the other nation. But the war had lasted for many years and they both realized that none of them could reach the goal because of their similar military power. They came to know that it was still early to realize a grand unification of China. With this realization, the two nations came a cease-fire treatment, dividing the whole China in two big political bodies.

Key Words : *Song*, *Taizong*, The *Yongxi* North Invasion, The Battle of *Gaolianghe*, The Battle of *Qigouguan*, The Battle of *Junziguan*, The Relations between *Song* and *Liao* Dynasty, *Liao Shengzong*, *Liao Chengtienhou*, *Yanyun* Districts, Get North after the South